

보련산의 문화유적

길 경 택

충주박물관

The Cultural Remains of Mt. Boryeon

KIL, Gyoung-Taek

Chung Ju Museum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cultural remains was done in the area of Mt. Boryeon from July 23 to 30, 2006. As a result, sixteen cultural remains including one mountain fortress wall, two sites of temples, nine sites of kilns, and four iron smelting sites were studied. The remains are mainly distributed in the Noeun-myeon area. Fourteen (87.5%) of them are in Noewun-myeon, the southern area of Mt. Boryeon, and two (12.5%) of them are in Yangseong-myeon, the northern area of Mt. Boryeon.

Key words : Mt. Boryeon, Mountain Fortress Wall, temple site, kiln site, iron smelting site

개 관

보련산은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와 양성면 용포리 경계에 위치하는 해발 764m나 되는 높은 산이다. 경치 좋고 웅장한 자태로 솟아 있는데, 만고풍상의 옛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산이다. 이 산의 유적으로는 보련산성과 절골의 절터가 있고 수룡폭포가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태창광산이 운영되었는데, 금의 생산을 비롯해서 중석과 아연 등을 생산하는 산업상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이 산은 노은면과 양성면에 걸쳐져 있음에도 노은면의 대표적 산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노은면이 보련산의 남사면에 발달하여 배산의 역할을 하는 까닭으로 여겨진다. 반면 양성면에서는 남쪽을 가로막는 산이기에 큰 친근감을 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 유적의 조사에 있어서도 노은면 지역인 보련산의 남사면에는 비교적 유적의 수가 많은데 비하여, 북사면인 양성면 지역은 유적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보련산의 기준을 노은면 신흥리 앞을 지나는 520번 국도를 남방한계로 하고, 양성면 능암리와 돈산리, 마련리, 용대리를 지나는 38번 국도를 북방한계로 하고자 한다. 또 노은면 연하리에서 하남고개를 지나 양성면 용대리로 들어가는 지방도를 서쪽 경계로, 노은면 수룡리에서 동막고

개를 지나 양성면 능암리로 가는 지방도를 동쪽 경계로 하여 보련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 안의 문화유적을 조사한 것이다.

이 안에는 보련산 정상에 정점으로 쇠바위봉을 비롯하여 보련산의 남북 사면을 포괄하는 범위로 동쪽으로 국사봉, 무쇠봉이 있고, 서쪽으로 국망산이 위치하는 지역이다.



Fig. 1. 수룡폭포 모습



Fig. 2. 보련산성 성벽

보련산의 문화유적

1. 산성

1) 보련산성

이 산성은 충주시 노은면과 양성면을 가르는 보련산(764.2m)의 정상과 거기서 남쪽으로 이어진 연봉을 외연으로 감고, 남쪽의 716m 봉우리 남쪽으로 에워싸 동향으로 낮아지는 능선을 따라서 보련산 정상에서 곧바로 동향한 능선을 타고 내려간 절벽과 계곡에서 만난다. 서고동저의 험준한 동향협곡을 에워싼 전형적인 입보농성용 석축 산성으로 서문, 북문, 남문, 동문 터가 남아 있고 수문은 붕괴되었다.

석축 이전의 토루로 여겨지는 성벽이 잔존되고 후대의 석축은 많이 붕괴되었으나, 원래의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으며, 외축내탁이 많다. 몽고침입기의 천룡산성에 해당한다. 지리지의 봉황성과 관련이 있으며, 둘레 6,621척이라는 기록이 있다.

산성 내에는 여러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입보용 산성이니 만큼 주로 생활과 관련된 유물이 수습된다. 수습되는 유물로는 다량의 기와편과 토기, 자기, 백자류 등인데, 이들은 모두가 고려시대 이후의 것들로 여겨진다. 삼국시대로 올려볼 수 있는 유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이곳을 고구려비에 보이는 우벌성(于伐城)으로 추정하는 논문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며,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산성의 축조에 대한 설화로는 가금면에 위치한 장미산성과 보련산성의 남매축성 설화가 구전되고 있다.

이 산성은 고려시대에 천룡산성이라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몽고의 5차 침입(1253년)시 양근성을 함락한 몽고군이 이곳에 피난하고 있던 고려인의 항복을 받아내었다는 기록이 있다. 양근과 천룡에서 항복한 고려인을 앞세워 충주성의 공략시 공격의 선봉에 세워 골육상쟁의 비극을 연출했으나, 충주인들이 김윤후의 독전에 힘입어 잘 맞아 싸워 몽고 본진을 막아냈다는 사실이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70일간에 걸친 전투로 충주목이 국원경으로 승격하기까지 한다.

바로 이 몽고와의 전투기록에 보이는 천룡산성이 바로 이곳 보련산 정상에 있는 보련산성이라 추정된다.

산성에서는 암기와, 수기와 조각을 비롯하여 토기항아리, 매병, 독 등의 조각이 보이며 청자대접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백자제기 등도 수습된다. 이 유물들은 주로 성벽을 따라 가면서 찾아지며 성안 곳곳에서도 그릇편이 수습된다.

현재까지 발견되는 유물들은 대부분 고려시대 이후의 것들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산성의 축조연대도 라말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2. 사지

1) 보련사지

노은면 연하2리에서 개울쪽을 따라 난 등산로로 오르다보면 보련산의 8부 능선상인 노은면 연하리산 26번지 일대에 보련사지가 위치한다.

이 보련사지에 대해서는 문화 유적 분포 지도 등에 “보련산에 있는 사지로 그 연원은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 오래된 절터로 알려져 있다. 『東國輿地勝覽』과 『世宗實錄』에 보이며 조선 초기에는 국가에서 급전까지 하였던 거찰이다. 1913년에 이곳에서 고구려 불상으로 추정되는 건흥 5년명 금동불 광배가 출토되었고, 1967년에는 금동불 1구가 발견되어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으나 이곳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보련사지라고 소개된 관련사진은 이곳의 석축을 촬영하여 소개하고 있으나, 현지조사 결과, 사역이 약 300여 평에 지나지 않는다. 규모면에서 실록에 소개될 정도의 거찰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습되는 유물 또한 격에 맞지 않는다.

현재 사역은 3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동쪽이며 사역의 가장 아래쪽인 첫 단은 할석으로 4~5단 쌓아 조성하였는데, 높이 약 1.5m, 길이 약 18m 정도이다. 둘째 단은 첫째 단에서 11m 위쪽에 할석쌓기로 5~6단 조성되었는데, 2.3m 높이로 길이 16m 정도가 축조되어 있다. 세 번째 단은 둘째 단에서 약 10m 위쪽에 조성되었으나, 높이가 낮고 흔적이 미미하다. 사역으로 보아 동향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지 내에서는 와편과 토기, 청자, 백자편 등이 산재해 있는데, 수습되는 유물의 대부분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것이다.

이곳은 옛 보련사에 딸린 암자 터가 아닌가 생각되어 주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련사는 현재 보련산 밑 연하리 2구 176-8번지에 현대식 사찰의 면모를 갖추



Fig. 3. 보련사지



Fig. 4. 보련산 수습 금동불

어 범 등을 잇고 있는데, 이 사찰은 옛 보련사와는 무관하게 최근 건립된 것이다. 오래된 유물은 전하지 않는다.

2) 천룡사지

노은면 수룡 3구 보련산 동남사면의 계곡에 위치하는 천룡마을의 위쪽 산 40번지와 339-1번지 밭을 중심으로 과수원과 주변 밭 일대에 약 4,000여 평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절터이다.

지표상에서는 어골문·격자문·무문계의 기와편이 산포되어 있고, 장방형이나 방형의 전(塼)과, 청자, 백자, 토기편 등이 수습된다. 지표조사시 암막새와 수막새 편을 수습하였으며, 많은 평와편 중 명문이 새겨져 있는 기와편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문와에는 ‘太天龍...’, ‘天用’, ‘天龍’ 등의 글씨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천룡(보련)산성과 관련된 천룡사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Fig. 5. 천룡사지의 석부재

사역은 보련산 동남사면 기슭의 경사면을 3~4단의 석축으로 구분한 모습으로 약 4,000여 평에 달한다. 석축은 정지한 방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쌓아올린 모습이며, 암·수막새기와 명문평기와, 전이 사용된 고급스런 대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의 앞쪽으로는 보련산에서 흘러나온 맑은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곳을 경계로 사역을 구분 짓는 높이 약 5m 정도의 석축을 축조하고 있다.

사지 내에는 초석으로 보이는 대형의 석재들과 돌확 등이 산포되어 있는데, 경작시 많은 주초석이 발견되어 밭의 구석으로 치워져 있는 상태이다. 주민들은 이 일대를 절터골이라고 부르며 천룡사 터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곳 사역은 정남향의 포근한 지점에 위치하며 멀리 평풍산을 안산으로 하고 있다.

이곳 사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고려시대 몽고와의 싸움에서 분전한 ‘天龍山城’이라는 곳을 지금의 보련산 정상에 있는 보련산성이라 비정하는 것과 비교해, 보련산과 천룡산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도 “寶蓮寺在天龍山”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련과 천룡은 같은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 수습되는 명문와편으로 보아 이곳이 천룡사지임이 명확하다고 할 때 기록사에 보이는 보련사가 바로 이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보련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세종 6년(1424년) 4월 5일(경술일)에 기록된 불교를 교·선 양종으로 나누고 36개소의 절만 남기자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내용에 나온다. 즉, 교종에 소속된 18개의 사찰 가운데 보련사가 남게 되는데, 150결의 원속전을 받으며 70명의 거승을 두는 대찰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충북 보은의 범주사의 200결, 100명의 거승과 비교되는 큰 사찰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노면만 보련산 기슭에서 이곳 천룡사지 정도 되는 규모의 사찰을 찾을 수 없고, 보련사지라고 추정하였던 사지가 기록과 비견할 수 없는 정도의 작은 암자터라면 이곳을 보련사지로 추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경작 등으로 인하여 사지의 일부가 보다 빠르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정밀조사 및 발굴을 시행하여 사지의 성격을 밝히고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곳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지표조사시 고려시대의 연화문 수막새, 암막새를 비롯하여 암·수기와와편, 명문기와, 무문전 등과 더불어 청자대접과 접시, 분청사기대접, 백자대접 및 잔 조각 등 많은 유물을 수습할 수 있었다.

명문와편 가운데 거의 완형에 가까운 암기와편으로 황회색을 띠는 것이 있는데, 겉면에는 상단에 마름모꼴무늬가 있고 바로 하단에 직방형 구획이 있는데, 이 안에 명문이 적혀 있다. 명문은 “大天龍寺”로 판단되는데, 좌중서로 써 있는 글자는 가로 2.5cm, 세로 2.5cm 크기이다. 어골문이 희미하게 찍혀있는 속에 4개의 방형 구획이 확인되는데, 이곳에 모두 글자가 있다. 내면에는 고은 포흔과 눈테가 보이며 대칼자국이 남아 있다.

또 방자유기틀을 비롯하여 석부재와 주초석과 석축이 확인된다. 특히 사역에서 토제동물상이 찾아져 주목된다.¹⁾



1) 토제동물상은 흙을 빚어 구운 것으로 보련산 조사 도중 이홍배 님이 수습한 것이다.

3. 가마터

1) 가마골 분청사기 가마터

보련산의 남사면에 위치한 노은면 연하리 가마골이 위치하는데, 이 일대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로 여겨진다.

노은에서 양성으로 가는 599번 지방도를 따라 2km쯤 가면 오른쪽으로 연하리 하단 부락이 위치한다. 이곳에서 보련산을 오르는 가마골 쪽으로 가다보면 왼편으로 금을 채굴하던 태창광업소의 폐건물이 보이는데, 이 광업소의 뒷편 산기슭에 분청사기 가마터가 위치한다.

이 가마터는 광업소를 지으며 일부 훼손되었는데, 그 잔여 흔적이 남아 있다. 분청사기대접, 매병, 잔 등의 분청사기편과 도지미, 불탄흙, 노벽편 등이 흩어져 있다. 중부지방의 분청사기 가마터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 유적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유적인 만큼 1424~1432년에 운영되었던 가마터로 보이며, 고려 상감청자의 연속선상에 있던 곳으로 평가된다.

수습 유물 중 분청사기대접의 구연부편은 살짝 외반한 모습이었다. 내면에는 상감기법으로 3줄의 호선을 그은 후 그 밑에 갈매기 모양을 가늘게 그려 넣어 구름을 표현한 듯 문양을 새겼고, 다시 아래쪽에 3줄의 호선을 그어 내저원각을 표현한 모습이다. 외면에는 중간에 3줄의 호선을 그은 것이 확인된다. 또 팔각접시 편에는 고려의 팔각접시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인다. 팔각접시의 각이 어느 정도 보이나 약간 둥그스런 기분이 있으며, 외면을 8개로 백토상감으로 면분할한 후 각각의 구획 안에 꽃 도장을 찍었다. 내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고 물레흔 만이 관찰되는 것이 있다. 도지미는 원통형으로 중간부분이 깨어져 반쪽만 남아있는 것이 수습되었는데, 상면에 그릇을 놓았던 흔적이 있으며 아래 면에는 모래가 많이 붙어있다.



Fig. 8. 가마골 분청사기 가마터



Fig. 9. 작은가마골 백자가마터

2) 작은가마골 백자가마터

노은에서 양성으로 넘어가는 고개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왼쪽 길 아래쪽으로 부곡천(富谷川)이 흐르고, 이 개천의 주변에 작은가마골 마을이 위치한다. 이 마을은 연하 3리에 해당하는데, 산이 가마처럼 움푹 들어갔다고 하여 가마골이라 부른다. 광산이 한창 성업 중일 때에는 700여 가구가 살던 곳이

라 하나, 현재는 민가 몇 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작은가마골의 노적바위에서 서편으로 약 300m 부곡천의 상류로 오르다 보면 과수원과 밭 주변에 곳곳에는 백자편이 흩어져 있다. 면적은 약 1,000평 정도 되는 곳으로 겹쳐서 붙어 있는 백자편과 도지미, 노벽편 등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주변에 백자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습 유물로는 백자대접편, 초벌구이 대접편, 분청사기편, 토기편, 도지미, 노벽편 등이 확인된다. 이곳에서는 분청사기편도 수습되나 주된 유물이 백자이기에 백자가마터가 주를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3) 작은가마골 청자·분청·백자가마터 1

노은에서 양성가는 하남고개 방향으로 4km쯤 가면 오른편에 하남천을 따라 형성된 하남마을이 위치한다. 이 하남마을의 마을 안길을 지나면 태창금광 쪽인 가마골로 오르는 길과 작은가마골로 가는 길로 나뉘어지는데, 작은가마골 쪽인 왼편 작은 다리를 지나면 노적바위가 있는 마을이 나타난다. 노적바위의 남쪽으로 약 200m 가면 100여 평 남짓의 밭이 나오는데 이 일대에 가마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 노벽편 등이 수습되는데, 그 양은 적은 편이다. 노벽편과 도지미 등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가마터가 있었음이 확실하며, 지표에서 보이는 청자편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백자를 만들던 조선시대까지 가마터가 계속 운영되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토기편과 초벌구이 대접편 등도 다수 확인된다.

4) 작은가마골 청자·분청·백자가마터 2

연하3리 가마골에는 금을 채광하던 태창광업소가 위치하는데, 이 광업소 내에는 연하리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다. 이 가마터에서 작은가마골 마을 쪽으로 100m쯤 내려가다 보면 청자, 분청사기, 백자가 수습되는 가마터가 위치한다.

이곳은 태창광업소의 좌하부분에 해당하는데, 청자나 분청사기, 백자편과 함께 노벽편, 도지미편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연하리 분청사기 가마터와도 관계된 가마터가 분명하다. 이곳에서도 청자편부터 백자편까지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가마터가 계속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작은가마골 분청사기가마터

연하3리 작은가마골에서 분청사기가마터가 확인된다. 노적바위가 위치한 마을에서 동북쪽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경작지인데, 부곡천의 왼쪽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인화문 분청사기편, 도지미, 노벽편 등이 산재하는데, 이들은 경작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유물이 수습되는 면적은 약 100평 정도이다.

6) 보련 웅기가마터

노은면 연하2리 보련마을에서 면소재지 쪽으로 나오는 길목의 우측에서 웅기가마터가 확인되었다. 이곳은 면소재지 동편으로 약 500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자그마한 야산의 동편 밭 가운데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웅기편과 도지미, 노벽편이 산재하는데, 경작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

이기에 수습되는 양은 적은 편이다. 광명단이 발라진 것으로 보아 일제시대까지는 운영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은 약 200평 정도인데, 웅기편이나 노벽편의 크기가 10cm 이상으로 제법 큰 것으로 보아 유적이 일부 잔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보다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웅기 구연부편, 웅기 뚜껑, 시루, 도지미, 노벽편과 붉은흙덩이 등이 주를 이룬다.

7) 천룡백자가마터

노은면 수룡2구 천룡마을 위쪽 계곡에서 조선 후기의 자기편과 소토 등이 산포하고 있으나, 이미 파괴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백자가마터이며 지표에서 수습되는 백자편에는 철화의 흔적도 보인다. 낙엽송이 심겨져 있는 주변 일대에 모래받침흔이 있는 백자가 다수 수습되며, 이 일대에 노벽편과 도지미가 출토되고 있다. 백자편으로 보아 주로 접시나 대접이 만들어진 듯하다.

가마터 전체면적은 약 200여 평 정도이고, 보련산에서 흘러나오는 개천을 경계로 천룡사지가 위치하고 있다.

8) 마련리 마장백자가마터

충주에서 장호원 방면의 국도를 따라 가면 능암초등학교를 지나게 되고 마련교를 지나서 왼편으로 마련리 마장마을이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의 뒤쪽 산자락과 경작지가 만나는 지점에 가마터가 보인다.

경사면을 경작지화하면서 일부 파괴가 된 듯하다. 약 100여 평의 밭과 산록에 백자조각과 도지미, 불탄 흙이 산포하고 있다.

9) 용대리 백자가마터

충주에서 장호원 방면의 국도를 가다 양성면 소재지에서 좌측의 신대마을로 꺾어 들어가면 599번 지방 국도가 이어진다. 이 도로를 따라 노은으로 가는 길에 학바위를 지나면 용대리 하남마을이 나온다. 여기서 왼편에 있는 마을길을 내려가면 궁평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게 되고, 이곳에서 500m 정도 들어가면 왼쪽으로 새로이 택지를 조성한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별말이다.

이 택지의 뒤편 산기슭이 가마터인데, 가마터의 일부를 훼손하며 건물 부지가 마련되었다. 이곳에는 많은 백자류의 대접과 접시, 잔 등과 도지미, 노벽편, 붉은 흙 등이 흩어져 있다. 조선 후기의 백자가마터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4. 야철지

1) 연하리야철지 1

노은면 하남마을에서 보련산 쪽으로 오르려면 가마골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 진입로 초입에 쇄똥이 산재하고 있다. 쇄똥의 양도 그리 많지 않고 노벽이나 송풍관도 확인되지 않았다. 태창광업소가 있던 곳이라, 금광이 개발되기 이전에 운영되었던 야철지가 마을의 형성으로 파괴되어 흩어졌고, 그

흔적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쇄똥이 수습되는 지역은 논으로 경작되는 지점과 인접한 민가의 뒷편 담장부분이다.

수습유물로는 잘게 부서진 쇄똥(slag)조각이 대부분이고, 노벽편과 불에 녹은 철광석 덩이가 수습된다. 주변에서 토기와 백자편도 드물게 수습된다. 토기는 회흑색의 경질토기편이고 자기는 백자로 야철지의 운영이 주로 조선시대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2) 연하리야철지 2

노은에서 양성쪽 하남고개 쪽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가다가 하남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 쪽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 공장이 위치한다. 이 공장의 뒤편에 야철지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인두대 크기의 쇄똥덩이와 노벽들이 다량 확인된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30여 년 전에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8톤 트럭 수 십대 분의 쇄똥을 채취하여 갔다고 한다. 이런 증언과 공장의 건설시에도 많은 쇄똥이 수습되었다는 이야기 등으로 미루어 이곳에는 대규모의 야철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충주시 이류면 쪽에서 확인된 야철지와 더불어 노은면 일대에서도 큰 규모의 제련업이 발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수습유물로는 큰 덩이의 쇄똥(slag)조각과 노벽편, 유출재 덩이 등이 있다. 쇄똥은 쇳물이 흘러 엉긴 것으로, 평균 5cm 이상 유출 자국을 남기며 흘러 응고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제련소의 규모가 대규모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3) 수룡야철지

위치는 수룡폭포 주차장 옆 화장실 뒤편에 쇄똥무지가 있다. 수룡폭포로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장 주변이 모두 야철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쇄부리업이 크게 성행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주민들에 의하면 1960년대쯤 이곳에서 쇄똥을 대량 반출하였다고 전한다.

6) 천룡야철지

천룡사지 좌측 편을 따라 흐르는 계곡 근처에 위치한다. 쇄똥이 특히 많이 발견되는 곳은 산 아래 쪽의 암벽 근처인데, 이 암벽이 철광석 성분이 많은 암석이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철광석을 채취하여 쇄부리업을 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유적 내에서는 쇄똥과 노벽편이 다수 확인되는데, 그 양으로 보아 비교적 소규모의 쇄부리업이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맺음말

보련산 지역은 자연환경 및 생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곳에 대한 조사는 이미 충주박물관이나 세연철박물관 등에서 기존에 철저하게 조사된 자료가 있어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거나 추가되지는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련산 자락에는 남사면인 노은면 지역에 유적의 분포가 조밀하며, 북사면인 양성면 지역은 빈약한 실정이다. 조사된 내용은 산성 1개소, 절터 2개소, 가마터 9개소, 야철지 4개소로 모두 16개소이다. 이 가운데 양성면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가마터 2곳으로 마련리 마장백자가마터와 용대리 백자가마터 뿐이다. 나머지 14곳은 모두 노은면 지역이다.

보련산 지역의 문화유적들은 대부분 유적의 존재만 보고되었을 뿐 본격적인 발굴조사나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천룡사지 같은 문화유적에서는 지금도 지표에서 많은 자료들이 계속 수습되는 등 관심이 절실하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용문헌

- 김병구. 2002. 보련사와 천룡사지, 예성문화, 22, 예성문화연구회.
- 강경숙. 1997. 「世宗實錄」地理志 기록에 있는 磁器所 陶片의 특징, 考古美術史論 5.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 길경택, 이선철. 2000. 충주 노은면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충주박물관.
- 세연철박물관. 2003. 충북 음성군의 야철지 충주시 양성면의 야철지.

요 약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는 2006년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보련산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산성 1개소, 절터 2개소, 가마터 9개소, 야철지 4개소로 모두 16개소의 문화유적이 조사되었다. 유적은 주로 보련산의 남사면인 노은면 쪽에 14개소(87.5%)가 분포하며, 북사면인 양성면 쪽에는 2개소(12.5%) 만이 있다.

검색어 : 보련산, 산성, 절터, 가마터 야철지